

18세기 조선 문인의 중국소설 독서와 비평*

권 운영**

<목 차>

1. 들어가며
2. 18세기 조선 문인의 중국소설 애호와 독서
 - 2.1 사료의 문헌적 가치
 - 2.2 문인들의 독서 성향
3. 18세기 조선 문인의 중국소설 감상과 비평
 - 3.1 중국소설을 비평한 문인들
 - 3.2 비평의 내용적 특징
4. 나오며

1. 들어가며

중국고전소설의 발전과정에서 18세기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중국소설이 초기에는 그저 짤막한 기록이나 이야기로 시작됐다면, 18세기에 들어서는 고전 중국 백화소설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紅樓夢》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紅樓夢》은 등장인물, 배경, 사건, 플롯, 구성, 캐릭터 설정 등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갖춘 작품이다. 복잡한 구성과 이야기 덕분에 독자는 가계도를 그리면서 읽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할 정도이니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古代 중국에서 소설이라는 장르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발전해 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7401)

**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조교수(chuntian@empas.com)

고, 明·清 시기에 들어서면서는 四大奇書, 四大名著라는 말을 탄생시킬 만큼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으로 발전해 갔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랐다. 중국과는 달리 조선의 18세기에는 중국서적 반입금지의 분위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많은 서적들 중 특히 소설은 바르지 못한 글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文體反正'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정조가 앞장서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18세기가 갖는 동양문학사적, 세계문학사적 가치가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조선의 18세기는 중국소설 반입과 독서를 금지한 분위기였지만, 시대적 흐름은 그와 상반되게 흘러갔다. 특히, 중국소설에 대한 자유로운 평론이 가장 많으면서도 심도 있게 정리된 兪晩柱의 《欽英》를 보면, 조선의 여러 문인들이 얼마나 중국 소설을 읽고 또 읽고 그것에 대해 곱씹어서 생각하고 논의했는지 알 수 있다. 필자가 일련의 연구 과정에서 이미 兪晩柱의 《欽英》을 살펴본 바 있다.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當時 그 밖의 다른 문인들이 중국소설에 대해 언급한 다양한 비평을 토대로 연구를 지속하고 그 결과를 지금 정리하려는 것이다. 즉, 이제부터 18세기 문인들 중에서 중국소설에 대해 유의미한 비평이나 감상문을 작성한 글을 모아서 재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간 국문학계에서도 학자들이 글을 수집하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중문학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전 산문의 자료로 주로 연구되었고 중국소설의 전파 및 번역 목록 등의 연구는 이뤄졌지만, 정작 중국고전소설 전공자로서 중국소설에 대한 비평 내용만을 중국문학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객체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많은 국문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문학비평사에서 다뤄줘야 할 부분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또한 兪晩柱의 《欽英》은 본 연구자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연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됨을 미리 밝히

고 결론 부분에서 본고의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종합 서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18세기 조선 문인의 중국소설 애호와 독서

제2장에서는 18세기 조선의 중국 소설에 대한 애호와 독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중국서적 읽기를 좋아하거나 자주 언급하며 특히, 중국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당시의 대표적인 문인인 李德懋와 李瀾 등의 독서 성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8세기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 여러 문인들의 사료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도서를 즐겨 있고 중국소설에 대해서 어떤 평어를 남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중국서적 중에서도 중국소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 엄중했던 18세기인 만큼 소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국소설에 대해 언급했다면 그 의견을 놓치지 않고 수집 정리한 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밝힌 李德懋와 李瀾 외에도 李用休, 安鼎福, 沈錡 등의 문장에서도 중국소설 읽기에 대한 자료가 존재함을 발견했는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2.1. 사료의 문헌적 가치

18세기 조선의 대표 문인들의 글에서 중국소설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지식인들이 중국소설에 대해 비평한 내용을 찾고 정리, 분석하는 필자에게 대단한 문헌적 가치를 안겨 준다. 시대는 다르지만 중국의 문장을 공부하는 공통점을 지닌 문인 학자로서 옛 문인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18세기에 조선 사람들이 중국 소설을 읽고 살폈다는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인이 아니라더라도, 중국소설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도 중국소설을 읽고 그것에 대해 공문서가 아닌 개인의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다면 찾아보고자 했다. 그 중에서 아래 完山 李氏의 《中國小說繪模本·序》의 글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릇 이 그림들은 고금의 행적으로, 제가들의 여러 초본들을 한데 엮어서 화원 몇 명을 시켜 본떠서 만든 책이다. 그 가운데 귀감이 될 만한 것, 경계가 될 만한 것, 진실한 것, 허황한 것 등이 있는데 어찌서인가?

漢 高祖가 발에 화살을 맞은 일, 宋江의 일편단심 충의, 伯牙가 지기를 비상하게 알아본 것 등은 천고에 가히 귀감이 될 만한 것이요, 衛懿공이 학을 좋아하다 나라를 망친 일, 項籍이 烏江에서 자결한 일, 《平妖傳》에서 媚兒가 요괴로 변한 일, 八戒가 술을 좋아하고 미색을 밝힌 일 등은 100년 후에라도 경계가 될 만한 것이다. 諸葛亮의 西城, 赤壁의 동풍, 文彥博이 요괴를 없앤 일 등은 정으로邪를 이긴 것이거나 誠으로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거나, 지혜로 어리석음을 물리친 것이니, 그 일이 진실한 것이다. 行者가 변하는 것, 公孫의 鬪法, 唐 玄宗이 불경 구하는 것 등은 역사책에 실려 있지 않다. 세상을 경계하는 말일 뿐, 그 일이 진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한 권에 역대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봄날이든 겨울밤이든 병을 치료하고 고적함을 치유하는 데 일조가 되리라.

壬午年(1762) 閏 5월 9일 完山 李氏가 藏春閣에서 쓰다.¹⁾

일찍이 박재연 선생은 완산 이씨를 영조의 후궁인 映嬪 李氏로 추정한 바 있다.²⁾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그가 중

1) 夫此畫者, 則古今行蹟, 諸家數抄, 一併選編, 令繪士若干人, 摸本成冊, 其中可有可鑑, 可戒者, 有可實, 可虛者, 何則? 漢古之中矢捫足, 宋江之一分忠義, 伯牙之知遇非常, 千古之下, 其可鑑焉者, 衛公之好鶴亡國, 項籍之烏江自刎, 《平妖》之媚兒妖變, 八戒之嗜酒嗜色, 百歲之後, 亦可戒焉者也. 諸葛之西城, 赤壁之東風, 文彥博之徐妖, 或以正勝邪, 以誠感天, 以智敗愚也, 其事實也; 行者之變化, 公孫之鬪法, 唐宗之求經, 無載於史冊, 而但警世之言, 其事之不實, 可知矣. 凡一卷之內, 歷代悉備, 可足春日冬夜, 求病求寂, 一助消日也夫. 壬午閏五月初九日, 完山李氏書于藏春閣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 출판부, 1993, 9~14쪽)

2) 박재연, 《완산이씨 중국소설회모본 해제》 참조.

국 소설에 매우 능통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사대기서는 물론이고 당시 출판되었던 많은 중국 서적을 섭렵했다는 것을 위의 인용문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유입과 전파가 쉽지 않았던 중국 서적을 접할 수 있었다면 궁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최소한 한자와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는 계층이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서적에 대한 조예와 그 가치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다. 그는 중국 고서를 읽고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특징을 나눠서 언급했다. 첫째로 귀감이 되는 것, 둘째 경계가 되는 것, 셋째 진실한 것, 넷째 허황된 것이라고 했다. 물론 필자가 고서라고 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서명이 모두 소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설이고 그 내용도 상세하여 참고할 만하다.

그는 〈伯牙叩琴〉이라는 제목으로 삼화를 넣어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가장 잘 알아주던 鍾子期와의 우정 이야기를 들어 그 의미를 칭송했다. 우리나라에서도 '伯牙絕絃'이라고 해서 종자가 병이 나서 죽고 난 후 백아가 자신의 연주를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세상에 없음을 슬퍼하면서 거문고 줄을 끊은 이야기가 유명한데 완산 이씨 역시 이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다. 이 밖에도 宋江이 귀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이후 항복한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 이를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로 설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완산 이씨는 항우가 오강에서 자결한 이야기, 저팔계가 술을 좋아하고 미색을 밝힌 일을 100년 후에도 경계할 일로 삼아서 자신이 읽었던 중국 서적의 이야기를 스토리별로 나누고 삼화를 넣어서 목록을 정리해 두었다.

완산 이씨는 18세기의 대표 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중국 서적을 매우 상세하게 목록화하고 감상을 서문에 간략히 적어 놓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당시의 독서 현황을 알 수 있어서 그 예로 삼게 되었다. 이렇듯 《中國小說繪模本》은 당시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 서적, 출판된 서적, 번역되어 읽힌 서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료이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학자들도 구하려

고 노력해 왔고 그 문헌적 가치가 상당함을 가늠할 수 있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문인 화가로 알려진 姜世晃³⁾은 중국의 대표적 역사 소설의 하나인 《列國志》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글을 남겼다.

《列國志》는 비리해서 볼 만하지 않으나 유독 圖像 한 권은 수레, 의복, 그릇, 제도 등을 옛 것을 고찰해서 그린 것이니 볼 만하다. 중국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음이 이와 같다.⁴⁾

세속에 '赤壁口'라는 말이 주발을 지칭하는데 사실 '口'가 아니고 '賦'가 맞다. 중국에서 입이 바깥으로 펼쳐진 사기그릇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赤壁賦〉 전문을 그릇의 표면에 쓰고 그림도 그려서 구워 만들었다. 그 그릇이 동방에 전해져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본받아 같은 모양으로 놋쇠 그릇을 만들어 '赤壁賦鉢'이라 불렀는데, '賦'가 와전되어 '口'가 된 것이다. 소설 《金瓶梅》에 '赤壁賦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⁵⁾

강세황은 문인이면서 화가이자 평론가이기도 했다. 그가 글도 읽었지만 당시 화풍을 읽고 미술작품에 관심이 많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문집인 《豹庵遺稿》에서 《列國志》 소설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폄하했으나, 삽화나 圖像集의 문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예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 소설 작품 등에 대한 조예가 있어서 당시 여항에서 쓰는 명칭의 어원과 와전의 근거에 대해 소상히 밝힘으로써 강세황 자신이 중국의 역사서와 소설을 읽고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姜世晃(1713~1791): 자는 光之이고 호는 添齋·豹菴이다. 주로 그림제작과 화평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서 조선 후기 화단에 한국적인 남종문인화품을 정착시키면서 진경산수화를 발전시켰다. 풍속화, 인물화를 유행시키고 새로운 서양화법을 수용하는데 기여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添齋畫譜》·《豹翁自誌》 등이 있고, 잡목으로는 《豹菴遺稿》가 있다.

4) 《列國志》陋俚，無足觀，獨其圖像一卷，車服，器用，制度，考古而爲之，頗可觀。中原人不可及，如此。(박동욱, 서신혜, 姜世晃, 《豹菴遺稿》, 소명출판, 2008, 122쪽 참고).

5) 俗有赤壁口，周鉢之稱，此非口乃賦也。華制沙器口外張者，偶書〈赤壁賦〉全文于器之膚，并畫其狀而燻造之。其器東來，東土效之，造鉢如其狀，仍稱之曰赤壁賦鉢，賦訛而爲口也。小說《金瓶梅》有赤壁賦器之說。(박동욱, 서신혜, 姜世晃, 《豹菴遺稿》, 소명출판, 2008, 131쪽 참고).

2.2. 문인들의 독서 성향

중국소설 유입 금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당시 문인들도 중국소설을 ‘稗官小說’이라 일컬으며 자신의 문집 등에 간단히 감회를 적은 글이 있다. 그 중에서 李宜顯⁶⁾의 《陶谷集》 권27 〈雲陽漫錄〉의 글을 인용해 보겠다.

패관소설은 漢·唐 이후부터 대대로 있었다. 《搜神記》 같은 책들은 허황되고 기이한 말이 많으나 문장은 자못 우아하고 온화했다. 다른 여러 종류들도 또한 간혹 실제 일을 담고 있어 史家들이 빠뜨린 것을 보충할 만하고, 문인들이 사건을 채록하는 데 도움이 될 만 하다. 《水滸傳》·《西遊記》 같은 것들은 비록 구상이 새롭고 교묘하며 문장이 진귀하여 별도로 한 종류의 글이 되었지만, 위에서 말한 여러 저서들에 비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명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즐기고, 게다가 풍속이 경박함과 질탕함을 좋아하였기에 번번이 한 편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지어내어 세상에 내다 팔았던 것이다. 대개는 모두 史傳을 부연하거나 남녀가 기쁨을 나눈 일이 그 내용이다. 부연한 역사가 나오자 正史의 사적이 어지러워졌으니 이것은 본래 마땅히 보지 않아야 한다. 또 남녀의 일은 비루하고 음란한 것이 많으니 더욱이 올곧은 선비가 눈에 가까이 할 바가 아니다. 근래에 사람들이 독실함을 드물고 이런 하찮은 기록을 즐겨 한적함을 달라고 시간을 보내는 거리로 삼으니 매우 한탄스럽다.⁷⁾

정사를 공부하고 중국의 사서삼경을 공부하던 문인이자 정치가가 생각할 때 백성들이 중국의 잡스러운 이야기를 읽고서 역사를 왜곡하고 남녀상열지사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 근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 뒤 이야기에는 李宜顯이 젊은이들에게 역사서나 문집 읽기를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시 여인이나

6) 李宜顯(1669~1745): 자는 德載, 호는 陶谷이며 李後天의 증손이자 李挺岳의 손자이며, 좌의정 李世白의 아들이다. 金昌協의 제자로 숙종 20년(169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서 영의정까지 오른 바 있다. 저서로는 《陶谷集》 32권이 있다.

7) 稗官小說, 自漢唐以來代有之. 如搜神記等書, 語多荒怪, 而文頗雅馴, 其他諸種, 間亦有實事, 可以補史家之闕遺, 備詞場之採掇者. 至如水滸傳, 西遊記之屬, 雖用意新巧, 命辭瑰奇, 別是一種文字, 非上所稱諸書之例也. 而明人劇賞之, 加以俗尚輕浮佚蕩, 輒贗作一副說話, 以售於世, 大抵皆演成史傳, 與男女交歡事也. 演史出, 而正史事蹟汨亂, 本不當觀. 男女之事, 又多猥鄙淫媠, 尤非莊士所可近眼, 而近來人鮮篤實, 喜以此等小記, 作為消寂遣日之資, 甚可歎也. (李宜顯, 《陶谷集·雲陽漫錄》, 한국문집총간 181권, 431쪽 참고).

일반 백성들은 중국 소설을 읽을 때 원문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거나 傳奇叟 등의 이야기꾼들이 장터 등에서 돈을 받고 들려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책을 출판하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모두 장사치다 보니 경제적 이익에 필요한 부분이 첨삭되는 일이 있었다. 장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도록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고 지루할 만한 줄거리는 생략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학식 있는 문인이나 정치가들은 왜곡된 역사 의식이나 충정, 도적을 흠모하거나 거짓을 남발하는 소설속의 주인공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패관소설의 폐단에 대해 지탄하는 글을 쓴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그들은 반대하면서도 그간 중국에서 들어오는 책을 지식인으로서 골고루 읽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문인들 중에서 《謝氏南征記》의 저자 金萬重의 손자인 金春澤(1670~1717)이 자신의 문집 《北軒集》에 중국소설에 관해 적은 글이 있는데 아래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소설 가운데 《太平廣記》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이나 《西遊記》나 《水滸傳》이 기이하고 웅장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平山冷燕》 같은 것은 또한 얼마나 멋스러운가? 그러나 끝내는 무익할 뿐이다.

西浦께서는 우리말로 많은 소설을 지으셨는데, 그 중 《南征記》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⁸⁾

위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서포 김만중의 소설 《사씨남정기》를 높이 평가했다. 김만중이 한글로 소설을 지은 것은 대개 부녀자들도 모두 암송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작품성에 비해서 한글로 지어진 것 때문에 諸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스스로 한문으로 번역하고 여러 군데 수정 보완했음을 밝히는 내용이 인용문 후문에 이어지

8) 小説. 無論廣記之雅麗, 西遊水滸之奇變宏博, 如平山冷燕又何等風致? 然終於無益而已. 西浦頗多以俗諺爲小説. (金春澤, 《北軒集·散藁》, 한국문집총간 185권, 228쪽 참고).

는 내용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상세한 상황보다는 인용문에 제시한 중국소설에 대한 소감이다. 중국소설이 모두 멋스럽다고 웅장하지만 결국은 또한 무익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 평가와 상반되게 마지막에 ‘무익함’을 강조한 것은 《사씨남정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극대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3. 18세기 조선 문인의 중국소설 감상과 비평

제2장에서 몇 가지 예제를 들어 18세기 조선의 문인 등 지식인들은 개인 문집이나 문장을 통해서 중국소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음을 규명해 보았다. 앞장에서 제시한 자료는 문인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소설 자체에 대한 것만도 아니다. 혹은 그림에 대한 평가, 혹은 세간에 나도는 와전된 이야기 등 다양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지식인들이 중국소설을 읽은 흔적과 그 문헌적 가치에 대해 규명해 본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소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기록을 남긴 18세기 조선 문인 중 대표성을 갖는 문인을 선별해서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3.1. 중국소설을 비평한 문인들

중국소설을 비평한 18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문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대표성의 기준으로는 세 가지를 들어 분류했다. 첫째, 18세기의 대표적 지식인이면서 개인 저서가 있는 문인이어야 한다. 둘째, 저서에 중국소설에 대한 비평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작품명 언급이 아니라 ‘호불호’의 견해를

넘어서 내용 등에 관한 실제 비평이나 비평적 시각을 갖춘 문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살펴서 중국 소설을 비평한 18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유만주를 제외하고 5인을 선정했는데, 李德懋⁹⁾, 李瀼¹⁰⁾, 李用休¹¹⁾, 安鼎福¹²⁾, 沈錫¹³⁾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여느 문인보다도 중국소설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따라서 언급한 소설의 권수가 많지 않더라도 문헌적, 문화적, 문학적 가치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해서 이와 같이 선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은 표로 목록화해 보았다.

작품명·작가명 등	李瀼	李用休	沈錫	安鼎福	李德懋
四大奇書				◎	
中國小說	◎				
演義小說					◎
《水滸傳》	◎	◎		◎	◎
《西遊記》			◎	◎	
《金瓶梅》			◎	◎	

- 9) 李德懋(1741~1793): 定宗의 서자인 茂林君의 10세손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자는 懋官, 호는 雅亭·靑莊館·東方一士 등이다. 특히 즐겨 사용한 靑莊이라는 호는 일명 信天翁으로 불린 해오라기를 뜻하는데, 청장은 맑고 깨끗한 물가에 붙박이처럼 서 있다가 다가오는 먹이만을 먹고 사는 청렴한 새라고 한다. 청장으로 호를 삼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성격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조선 후기 백과전서라고 불리는 《靑莊館全書》를 저서로 남겼다.
- 10) 李瀼(1681~1763): 자는 子新, 호는 星湖이다. 팔대조 李繼孫이 성종 때 병중판서 지중추부사를 지내는 등 명문 가문의 후속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저서로는 《星湖僿說》, 《藿憂錄》 등이 있다.
- 11) 李用休(1708~1782): 조선 후기 문인으로 자는 景命, 호는 惠實齋이다. 아버지는 李沆이고 李瀼이 작은 아버지이며, 남인 실학파의 중심인물인 李家煥이 그의 아들이다. 저서로는 《惠實雜著》 등이 있다.
- 12) 安鼎福(1712~1791): 조선 후기 역사학자이자 실학자이다. 자는 百順이고 호는 順菴이다. 安信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예조참의 安瑞羽이고, 아버지는 安極이며 그는 李瀼을 스승으로 모셨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東史綱目》·《順菴集》 등이 있다.
- 13) 沈錫(1722~1784): 자는 汝章이다. 실학자로 잘 알려진 17세기의 沈槈와는 본관이 靑松으로 같아서 혼동할 수 있으나 다른 인물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靑松筆譚》이 있다.

《三國志》					
《三國演義》	◎		◎	◎	
《世說新語》			◎		
《肉蒲團》			◎		
小說					◎

[표1] 18세기 조선 문인의 중국소설비평 내용 정리

조선 문인 한 명이 중국 소설 한 편에 대해 자신의 문집에 직접 비평을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유만주와 같이 꾸준히 독서일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위의 문인들은 當代를 대표하는 문인이면서도 자신의 문집에 1편 이상의 중국 소설에 대해 상당한 분량과 식견을 가지고 비평문을 남겼다는 것은 18세기의 중국소설 반입 금지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李德懋는 서울 출신으로 6살에 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치고자 중국 역사책인 《十九史略》을 읽혔는데, 1편도 채 끝나기 전에 훗날 깨우친 영재였다. 16세에 혼인했고, 20세 무렵에는 남산 아래 지금의 종로구 부근에 위치한 장흥방이라는 곳에서 살았다. 이 무렵 집 근처 남산을 자주 오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많이 지었다.

이덕무는 특히, 학문과 시문에 뛰어난 것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행장을 지은 연암 박지원은 시문에 능한 이덕무를 기리며 “지금 그의 시문을 영원한 내세에 유포하려 하니 후세에 이덕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여기에서 구하리라. 그가 죽은 후 후사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까 했으나 얻을 수가 없구나”하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이덕무는 또한 朴齊家, 李書九, 柳得恭과 더불어 四家詩人의 한 사람으로 淸왕조에까지 그 이름을 날린 문인이다. 그는 經書와 四書부터 奇文異書에 이르기까지 박학다식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나 서자였기 때문에 출세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여 서얼 출신의 뛰어난 학자들을 등용할

때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등과 함께 검서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박물학에 정통한 이덕무는 사회 경제적 개혁을 주장하기보다는 고증학적인 학문 토대를 마련하여 훗날 丁若鏞, 金正喜 등에 학문적 영향을 준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¹⁴⁾

李瀾은 1681년 10월 18일에 아버지 이하진과 후부인 權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여윈 뒤에 안산 침성리로 돌아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그는 10살이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으리만큼 허약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둘째 형 李潛에게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고 다음 해에는 둘째 형 이잠이 張禧嬪을 두둔하는 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47세를 일기로 옥사했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침성리에 칩거했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星湖라는 호수가 있어서 이익의 호도 여기에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이익의 田莊도 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이익은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많았고 병약했지만 83세까지 살았고 침성리에서 눈을 감았다.

安鼎福은 스승 이익의 인품에 대해 “剛毅篤實 이것은 선생의 뜻이요, 正大光明 이것은 선생의 덕이요, 선생의 학은 精深宏博하고, 그 기상은 化風景雲이요, 그襟懷는 秋月氷壺이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의 역사인식은 종래의 주관적이고 의리·시비위주의 인식태도를 벗어나 객관적이며 비판적·실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문헌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비판이 없이 주관적인 억측이나 요량으로 역사를 서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학문 연마과정에서 이룩한 《臨官政要》와 《下學指南》은 안정복의 초기 사상을 대변해주는 저술이다. 이 중에서 《임관정요》는 후대 丁若鏞의 《牧民心書》의 저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유형원의 《東史綱目凡例》를 효시로 하여, 이익의 조언으로 편찬된 역사서인 《東史綱目》은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유형원에서 이익으로, 이익에서 안정복으로의 계보를 잇는 것이라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동사강목》은 안정복의 생애에서 대표적인 저술이다.¹⁵⁾

이용휴와 심재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 후기 실학의 중심에서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 이들이 과연 중국소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평하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비평의 내용적 특징

무엇보다도 중국소설을 읽었던 문인들의 독서 성향과 당시 시대적 상황은 바탕으로 그들이 직접 쏟아 놓은 중국소설에 대한 평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2.1. 演史와 正史의 混在에 대한 비판

18세기 내용 비평의 주요 내용은 演史가 正史의 사적 내용을 혼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沈鏞은 《松泉筆譚》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演史가 나와서 正史의 사적이 혼란스러워졌다. 소위 演史는 《西周演義》·《列國志》·《東西漢演義》·《三國志演義》·《南北宋演義》·《殘唐演義》 등의 책들인데, 《三國志演義》가 제일 먼저 나왔다. 이제 《通鑑綱目》으로 《三國志》를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을 하나둘 지적한다. …… 《通鑑綱目》에서는 馬超가 배반하자 다음 해에 馬騰을 죽였고 楊阜는 “마초가 아버지와 군자를 배반하였다”고 했는데, 《三國志演義》에서는 마등이 죽자 마초가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갚았다고 했다. 무릇 이와 같은 것들이 연사가 전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¹⁶⁾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16) 演史出而正史事跡汨亂. 所謂演史者, 《西周演義》, 《列國志》, 《東西漢演義》, 《三國志》, 《南北宋演義》, 《殘唐演義》等書, 而《三國演義》最是先出. 今以《綱目》按《三國

연의소설이 유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혼란에서이다. 정사의 지루함을 줄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부연 설명을 더하다 보니, 말하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 혹은 설명하는 사람의 의견이 부연되기 마련이다. 그뿐이 아니다. 원래 시작되었던 《三國志演義》의 원작보다 훨씬 재밌게 각색되었다. 《三國演義》는 원래 正史 《三國志》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야기이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說話人들의 대본부터 雜劇까지 이어지고 評話를 거쳐서 장회소설인 백화 장편소설로 완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추가되었고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들로 구성하게 되어 正史의 내용에 없는 내용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까지 등장해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3.2.2. 四大奇書 비평

18세기 조선 문인들이 주로 비평했던 비평은 사대기서에 대한 비평에 국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水滸傳》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三國演義》와 《西遊記》, 《金瓶梅》 순이다.

① 《水滸傳》 비평

《水滸傳》이 《三國演義》보다 비평 빈도가 높은 것은 김성탄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18세기 당시 문인들이 《水滸傳》을 직접 통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李德懋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듣건대, 명말 도적들이 《水滸傳》의 강도들 이름을 흉내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인심을 감발하는 데 일조한 것인가? 내가 일찍이 《水滸

志). 摘其偽誤者一二. …… 《綱目》, 馬超反, 翌年誅馬騰, 楊阜以謂馬超背父及君子, 此也, 而演義則馬騰死而馬超興兵報仇. 凡如此之類, 演史汨亂正史…….(心錄, 《松泉筆譚》 권1, 규장각 소장본 참고).

傳》을 보니, 인정물태를 묘사함에 문심이 교묘하여 소설 중의 으뜸이며, 녹림의 동호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사대부들이 한결같이 탐독하여 어느 책에는 鍾伯敬이 비평한 것도 있으니, 종백경의 실성함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생각건대, 경박한 자들이 종백경의 이름을 빌어 간행하여 그 글의 무게를 더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김성탄이란 자가 제멋대로 평하기를 “친하의 문장 중에 《水滸傳》보다 나은 것이 없다. 《水滸傳》을 잘 읽으면 사람이 여유작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생각건대, 시내암은 뛰어난 재주로 한 덩이 원통함이 가슴에 맺혀 이러한 허망한 말을 지어, 그 평생토록 세상을 비난하던 마음을 펼쳐냈던 것인가? 그 마음은 비통하고 괴롭다 하겠으나, 그 죄는 머리털을 다 뽑아도 속죄하기 어려울 것이다.¹⁷⁾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성탄이란 자가 제멋대로 평하기를, ‘《水滸傳》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김성탄의 《水滸傳》에 대한 평을 인용한 것을 보면 김성탄의 평가가 이덕무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李德懋는 위의 글에서 《水滸傳》의 문장에 대해서 “인정물태를 묘사함에 문심이 교묘하여 소설 중의 으뜸이며”라고 작가의 문장이 매우 훌륭하다고 극찬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세상에 대한 비난과 비통함에 귀결된 것은 매우 죄스러운 것이라고 작가의 문장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게 그 내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나쁜 데 빠져 돌이킬 수 없다면 어찌 할 도리가 없다. …… 김성탄은 《水滸傳》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쳐 배움의 입문으로 삼았다. 이것들은 드러난 것이니 크게 놀랄 만하다. 그러나 마음씨가 바르지 못한 소인 가운데 이러한 술수에 빠져들지 않은 이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다만 그 대부분이 주저하며 감히 말하지 못할 따름이다. 위태롭고도 슬픈 일이다.¹⁸⁾

17) 余嘗聞，明末流賊多冒水滸傳中強盜名字，是亦感激人心之一助哉？余嘗看水滸傳，其寫人人物態處，文心巧妙，可爲小說之魁，合號綠林董狐，然士大夫一向沉湎，一本有鍾伯敬評批者，伯敬之顛倒，乃如是耶？……又有金聖嘆者，姿意評讚，自言天下之文章，無出水滸右者，善讀水滸，其爲人綽綽有裕……意者，耐菴以錦繡之才，有一塊冤憤，疊鬱於中，發此無實之言，叙其平生罵世之心歟？其心則悲且苦矣，其罪則擢髮難贖也。（李德懋，《靑藏館全書》 권5, 민중문화추진회, 1977, 5~6쪽 참고)

18) 人心之陷溺，不可以挽回，則無可奈何耳。……金聖嘆以《水滸傳》，教其愛子，爲初學之門，

이덕무는 이어서 위와 같이 사람의 본심이 나쁜 데 빠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앞선 인용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성탄이 《水滸傳》을 자식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 예를 들면서 소설의 내용이 사회적 혼란이나 어린 자식이나 소인배들이 나쁜 술수에 빠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적었다.

《水滸傳》이 이렇게 역사와 정의를 왜곡하고 도적들의 궤기임에도 불구하고 李瀼의 조카인 李用休 역시 《水滸傳》에 대해 “《水滸傳》은 권모가 뛰어난 것 뿐 아니라, 문장도 실로 볼 만하다”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水滸傳》은 권모가 뛰어난 것 뿐 아니라, 문장도 실로 볼 만하다. 《文獻通考》에 이르길, “나관중이 지었다”라고 했는데, 楊升庵은 “나관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내가 전에 《錢虞山集》을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 대개 《水滸傳》은 간신들이 국정을 좀먹고 오랑캐들이 침노하는 것을 허황된 말에 의탁하여 울분을 씻어낸 것이니, 어찌 龔聖予와 같은 유민이 짓지 않았다고 할 것인가? 그런데 단지 ‘격찬했다’라고만 하고 ‘지었다’고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공성여의 이름은 開이고 祥興 때 사람이다.¹⁹⁾

이에 비해 李瀼은 아래와 같이 《水滸傳》이 도적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글 전체가 작당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아래의 내용을 이어서 보겠다.

《水滸傳》은 施某가 지은 것인데, 그 글은 전체가 작당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무릇 군사를 쓰는 데 있어 기이한 속임이 이보다 더 교묘할 수는 없으니, 곧 병가의 큰 숲이 되었다. 후세에 도적들이 숭상하는 바가 되어 그 해독이

此固表出者，故可大驚。然心術不正之小人，不陷於此數者，定未知其幾人也。但多越趨而不敢發口耳，危哉悲哉。(李德懋，〈靑藏館全書〉 권5, 민족문화추진회, 1977, 50쪽 참고)

19) 《水滸傳》，非惟權謀機變，文章實佳。《文獻通考》云：羅本貫中著，楊升庵云：非貫中所可及。余曾見《錢虞山集》云，……蓋《水滸傳》爲奸臣蠹政，胡寇侵凌，托之空言，以泄其憤者，安知非遺民若聖予者所作耶？只言激贊，未言撰傳，不可祥也。聖子名開，祥興間人云。(李用休，〈惠實雜著〉 권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참고.)

널리 뻗쳐서 막을 수가 없었다. ……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을 지은 자는 반드시 은밀하게 도적의 뜻을 품고 있는 자일 것이다. 예전에 한 재상이 도적들을 治罪함에 있어 그 상황을 세세히 힐문하여 빠짐이 없으니, 도적들이 서로 혀를 내두르며, “이 양반은 일찍이 도적이 되었던 자가 아닌가? 어찌 우리의 행적을 이렇게 다 아는가?”라고 하였다는 말이 있다. 施氏의 《水滸傳》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²⁰⁾

그리고 지은이 역시 이러한 역심과 도적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소설 작품의 창작 의도와 배경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의심한 것인데, 글쓰기에 있어서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西遊記》 비평

《西遊記》는 당시의 사대기서 비평에 있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西遊記》는 권선징악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沈錡가 표현하고 있다. 沈錡가 《西遊記》에 대해 비평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내가 살펴보니 《西遊記》·《水滸傳》은 문장이 뛰어나서 稗書 가운데 大家였다. 선배 중에 이 책들을 시작으로 문장을 이룬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西遊記》에서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 미친해지고 사물은 있던 곳을 벗어나면 귀해진다’라든가 “좋은 술은 사람의 얼굴을 붉게 하고, 황금은 선비의 마음을 음흉하게 한다”라든가 “선을 행하는 사람은 뜰의 봄풀과 같아서 알게 모르게 자라나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알게 모르게 줄어들어 날이 갈수록 이지러진다”라는 말은 진실로 명답이고 격언이므로 사람을 경계하고 感發할 만하다고 했다.²¹⁾

20) 《水滸傳》者, 施某所作. 其言無非捭闔搖撼, 凡用兵奇詐, 莫巧於此, 便是一兵家大數也. 後爲賊寇所祖, 其害彌巨, 不可遏也. …… 余謂作是書者, 其必有陰賊之志乎. 昔傳有一宰臣治盜, 細詰其情狀, 無遺, 盜相顧吐舌, 曰: 此公莫是曾爲盜者耶? 何悉我迹如是? 施氏《水滸》一書, 亦猶是也. (李瀛, 《星湖僿說》 권12, 민족문화추진회, 1977, 20쪽 참고).

21) 愚按《西遊記》·《水滸傳》, 文場機軸, 稗書中大家數也. 先輩或有發跡於是書, 而成文章者云: 《西遊記》, 如人離鄉則賤, 物雜鄉則貴·綠酒紅人面, 黃金黑士心·行善之人, 如春園之

沈鐸는 화가이기도 해서 다른 문인들에 비해서 감성적 비평에 능한 편이었다. 따라서 그가 《西遊記》를 읽으면서 인간 본성의 악한 마음을 경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소설이 感發의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비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③ 《金瓶梅》 비평

《金瓶梅》는 문학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음란한 내용으로 저평가된 작품이기도 하다. 《紅樓夢》이 등장하면서 사대명저에 사대기서 중 하나인 《金瓶梅》를 배제하게 되었다. 《金瓶梅》에 대해서 沈鐸가 기록한 비평 내용을 살펴보겠다.

…… 내가 중국 사람들을 살펴보니, 향을 피우며 차를 마시고 불자를 들고 현담을 나누어 곁과 속이 모두 맑고 깨끗해서 세상살이에 얽매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재화에 욕심을 내고 여색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음란한 일을 그려 놓고 항상 들여다보며 약을 먹고 욕망을 제멋대로 펼처서, 책을 만들어내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니 《金瓶梅》·《肉蒲團》 같은 책은 음란함을 가르치지 않음이 없다. ……²²⁾

학자로서 중국을 살펴보았을 때는 모두 현담을 나누고 깨끗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즐겨 읽는다는 사대기서 중 《金瓶梅》와 유사한 성격의 《肉蒲團》은 모두 음란하기 그지없고 음란한 내용 등 인간의 욕망을 제멋대로 다루고 있다고 솔직하게 비평한 내용이다.

草，不見其長，日有所增，行惡之人，女磨刀之石，不見其損，日有所虧，此眞名談·格言，而亦足以警發人者也。(心鐸, 《松泉筆譚》 권1, 규장각 소장본 31쪽 참고).

22) 愚按華人，焚香啜茶，揮塵談玄，宜若表裏瑩澈，無一點塵累，而率多貪黷貨財，汨溺女色，淫褻之事，圖形當日，服藥縱慾，以至著述文字，如《金瓶梅》·《肉蒲團》等書，無非誨淫之術也。(心鐸, 《松泉筆譚》 권1, 규장각 소장본 31쪽 참고).

④ 기타

소설의 특성을 정확하게 비평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李德懋의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설에는 세 가지 미혹한 점이 있다. 없는 것을 꾸며내어〔駕虛鑿空〕 귀신과 꿈을 이야기하니, 짓는 것이 첫 번째 미혹함이요, 허황한 것을 도와 비친한 것을 고취하니 비평하는 것이 두 번째 미혹함이요, 땀과 시간을 허비하여 경전을 등한지 하니, 보는 것이 세 번째 미혹함이다. 짓는 것도 옳지 않은데 무슨 마음으로 비평을 하였단 말인가? 비평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또한 《三國志》과 《水滸傳》의 속편까지 만든 자가 있으니 비루하고 비루하여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아아! 시내암과 김성탄이 그 재주와 총명으로 본분의 일에 힘썼다면 존경할 만하지 않겠는가? 23)

이덕무는 자신의 문장에서 '駕虛鑿空(없는 것을 꾸며내다)'는 말로 소설비평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고 소설에 대한 부정적 가치와 사대기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그는 시내암과 김성탄이 모두 글쓰기를 잘 하는 작가임에도 비루한 글을 써서 재능을 낭비했다고 그들의 작품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3.2.3. 소설의 가치

조선의 15세기~17세기에는 소설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소설로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교화할 수 있고, 심심할 때 소일거리로 좋고, 박학의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18세기의 소설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3) 小說有三惑，架虛鑿空，談鬼說夢，作之者，一惑也。羽翼浮誕，鼓吹淺陋，評之者，二惑也。虛費膏晷，魯莽經典，看之者，三惑也。作之猶不可，何心以爲評？評之猶不可，又有續國誌者，續水滸者，鄙哉鄙哉！尤不足論也。嗚呼，以施耐菴聖嘆輩之才且慧，移此勤於本分事，則其可不敬之乎。(李德懋, 《靑藏館全書》 권5, 민족문화추진회, 1977, 5~6쪽 참고).

① 긍정적 가치

18세기 조선 문인 5인방 중에서 소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沈錡였다. 그는 그의 문장에서 아래와 같이 《搜神記》의 문장이 수려함을 긍정적으로 비평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패관소설은 漢·唐 이후로 대대로 있었다. 《搜神記》와 같은 책들은 허황되고 기이한 말이 있으나 문장은 자못 우아하고 온화했다. 다른 여러 종류들도 또한 간혹 실제 일을 담고 있어 사가들이 빠뜨린 것을 보충할 만하고 문인들이 사건을 채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다.²⁴⁾

그는 패관소설 즉 당시의 소설이 漢代 이후부터 있었다고 보고, 東晉 시기 干寶가 편찬한 《搜神記》와 같은 작품의 문장을 극찬했다. 문장을 칭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백화체가 아닌 문언체로 이뤄진 문장이기 때문이라고도 판단된다. 사대기서는 백화체 문장으로 문인의 글처럼 아름답고 단아하지 않다. 그러나 문언소설은 당시 문인들의 문장으로 써졌기 때문에 문인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용이 기이하다고는 하나 문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② 부정적 가치

安鼎福은 자신의 저서 《順菴集》의 〈東人所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소설의 부정적 가치를 모친의 말을 빌려 전달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풍속은 본디 부녀자들에게 학문을 배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문자를 배우지 않으셨다. …… “소설이란 대개 거짓으로 꾸며내어 이야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악한데 빠지게 할 수 있으니 보아서 안 된다”라고 하셨다.²⁵⁾

24) 稗官小說, 自漢·唐以來代有之. 如《搜神記》等書, 語多謊怪, 而文頗雅馴. 其他諸種, 間亦有實事, 可以補史家之闕遺, 備詞場之採掇者. (心錄, 《松泉筆譚》 권1, 규장각 소장본 31쪽 참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젊은이들도 사악함에 쉽게 빠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임, 도박, 마약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이 이러한 극단적인 사악한 요소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안정복의 어조를 통해 살펴 보면, 일반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데 소설이 단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李瀛과 李德懋는 모두 아래와 같이 자신의 문장을 통해서 소설의 부정적 가치에 대해서 비평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선조 때 임금의 전교에 '張飛가 한 번 소리 질러 만군을 달아나게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奇大升이 나아가 아뢰기를, "《三國演義》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니다. 신이 아직 보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으니 허황한 말이 많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이 책이 처음 나오자 임금이 우연히 본 것인데, 고봉이 아뢴 말이 참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날에 그 책이 간행되어 널리 퍼져서 집집마다 송독하고, 과거 시험에게 시제로 삼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또한 세대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²⁵⁾

奇大升이 임금에게 《三國演義》의 내용이 과거 시험의 시제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해 통탄한 내용은 유명한 故事이다. 과거 시험은 正史를 근거로 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시험 출제자도 正史와 演史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 현 세태임을 여실하게 드러낸 부분으로 正史를 혼란하게 하는 소설의 부정적 가치를 논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西遊記》와 《三國演義》를 보는데, 선군께서 보시고 크게 꾸짖으시기를, "이런 잡서들은 正史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무너뜨리느니라. 내가

25) 東俗雅不使婦女學文, 高先妣雖不學習文字……小說家流, 皆假做立說, 無一眞者, 亦足以溺人心術, 不可觀也。(安鼎福, 《順菴集·東人所著書》 권13, 민족문화추진회, 1997, 5쪽 참고).

26) 宣廟之世, 上教有張飛一聲走萬軍之語, 奇高峰大升進曰: 《三國演義》出來未久, 臣未之見, 後因朋輩間聞之, 甚多妄誕云云. 蓋此書始出, 而上偶及之, 高峰之啓, 眞得體矣. 在今印出廣布, 家戶誦讀, 試場之中, 舉以爲題, 前後相讀, 不知愧耻, 亦可以觀世變。(李瀛, 《星湖僊說》 권12, 민족문화추진회, 1977, 31~32쪽 참고).

너에게 엄한 아버가 되는 동시에 좋은 스승이 되려고 하니, 어찌 내 자식을 점차 나쁜 길로 가게 내버려두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그 훈계를 받들어 다시는 演史와 稗記를 가까이하지 않았다.……27)

소설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림이 가장 심한 것이므로 자제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 이는 진실로 인심을 감발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아, 어찌 될 법이나 한 말인가?28)

李德懋가 왜 소설을 멀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李德懋의 부친은 《西遊記》와 《三國演義》를 보는 李德懋를 크게 꾸짖고 훈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덕무는 그 이후 소설의 부정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스스로 연의소설이나 패설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자제들에게 소설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설의 음란성에 대해 강조한 비평 내용도 있다.

…… 중국 소설을 보면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남녀가 어려서부터 그 형편상 더불어 성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되니 그 사이에 음란하고 추하여 부끄러워할 일들이 많다. 혹자들은 뒤에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담으로 여기기도 하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래 합하여 결혼하게 되는 것일 뿐, 음욕에 이끌리는 마음이 일어나 그러한 것이다.……29)

이 글은 李瀼이 쓴 글인데, 그 중에서도 《金瓶梅》 등의 중국소설에서 남녀의 음란한 이야기가 성행하는 것도 중국소설이 인간을 음욕에 이끌리게 하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한중 서사 및 중국소설연구에 대해 지속적인

27) 不肖嘗觀《西遊記》·《三國演義》，先君見帆大責曰：此等雜書，亂正史，壞人心，吾爲汝嚴父，兼以良師，豈可使吾子弟駸駸然外馳哉？不肖既承此訓，不敢復近演史·稗記。（李德懋，《靑藏館全書》 권20, 민족문화추진회, 1977, 87쪽 참고).

28) 小說最壞人心術，不可使子弟開看。……誠感激人心之一助，可謂盛矣云。嘻嘻！烏足道哉？（李德懋，《靑藏館全書》 권5, 민족문화추진회, 1977, 5~6쪽 참고).

29) 觀於中華小說，異性男女從幼少，其勢不能不相與狎暱，其間多淫醜可耻，或後因成婚以爲美談，此無他，本合爲婚，故導慾生心而然也。（李瀼，《星湖僊說》 권15, 민족문화추진회, 1977, 25쪽 참고).

로 가져왔던 관심을 토대로 조선시대 문인의 중국소설에 대한 독서와 평론에 대한 연구 경험을 더하여 기존 연구 성과의 공백을 채우는 비교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18세기 조선의 중국소설 비평에 대한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4. 나오며

본고는 18세기 조선 문인들의 문헌 자료를 통해서 중국소설에 대한 독서, 애호, 감상, 비평 등의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본고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8세기 조선 문인의 소설 애호와 독서에 관한 내용은 주로 四大奇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출판 산업과 번역 산업 등의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판된 서적을 통해서 각 작품의 선호도 역시 가늠할 수 있다.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사대기서가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인기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다. 책으로 읽든 소리로 들든 우선 내용이 재밌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드라마의 연기자들의 연기가 뛰어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재밌게 혹은 연기를 잘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연속극 정주행, 원작 다시보기, 비평하기, 댓글달기 등 여러 방면으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18세기 조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듣는 이야기, 창극, 마당놀이 모두 소설 속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특히, 18세기 조선에서 주로 출판된 도서는 바로 四大奇書가 주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내용 비평에 있어서도 주로 사대기서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三國演義》에 나타나는 正史와 演史의 혼란에 관한 우려, 《水

濼傳》에 드러난 도적들의 역심, 《金瓶梅》의 음란성이 농후한 점 등을 걱정하는 부정적 비평 등은 결국 본 작품을 읽고 감상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18세기 조선 문인들의 소설 비평 내용은 사대기서에 대해 논의한 것이 절반 이상인 것을 보면 그만큼 사대기서를 많이 읽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독서와 비평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 연장선상에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 17세기까지 소설의 효용성을 긍정적 가치로 인정했다면, 18세기에 들어서서는 《水滸傳》의 문장력과 《西遊記》의 感發 등을 제외하고는 긍정적 평가가 부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문제반정'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설의 교육적 가치, 소일거리로서의 가치, 박학의 가치 등 긍정적 가치를 비평한 내용이 많았던 반면, 18세기에는 부정적 가치에 대한 비평이 더욱 많아졌다. 주로 중국소설에서 다루는 주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주제인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백성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셌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18세기 여러 문인의 문장에서 나타난 중국소설에 대한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는 결국, 국문학계에서 연구한 기존의 고소설과 중국고전소설에 대한 혼재된 연구에서 한발 나아간 연구 성과가 될 것이고, 국문학계와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독립된 연구 성과와 한중 비교 연구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연구 성과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중화권 중문학계에서도 본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중국 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소설 읽기와 평론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와 가치 제고를 통해서 다자간의 연구 가능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을 배경으로 교집합과 합집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0여 년 전에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책을 읽고 그 감상을 솔직하게 평론한 문장을 고찰하는 작업은 단순히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의 독자적인 면모와 의미를 찾아내고 현재 격변하는 한중 관계의 문화적 현실에 부응하는 인문학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본 연구 성과는 고전과 현대, 폐쇄적이지만 개방적인 학문적 교류의 흐름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학문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한 이론적 체계화는 동아시아 문화라는 토대에 근거하고 자신의 자아를 발현하며 다양한 문학에 대한 개인의 감상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개성적인 글쓰기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 參考文獻 >

[원전·주석서·공구서]

- 柳鐸一, 《韓國 古小說 批評資料集成》,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韓國古小說研究會 편, 《古小說의 著作과 傳播》,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在韓國之傳播》, 中國上海學林出版社, 1998.
 _____. 《中國古典小說批評資料叢考》, 서울: 학고방, 2003.
 簡鎬允, 《韓國古小說批評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2002.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II》, 서울: 태학사, 2005.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논문]

- 이세현, <星湖僊說에 나타난 李翼의 文學論 研究>, 《동방한문학》 제7집, 1991.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제65집, 1998.
 許庚寅, <許筠—朝鮮朝의 金聖歎>, 中國語文學論集 第14輯, 2000.
 신향수, <李翼의 筆法論과 역사인식>, 《韓國史學史學報》 제4집, 2001, 39~65쪽.
 최준하, <順庵 安鼎福 文學의 一考察 - '詩'와 '傳'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3집, 2003, 501~524쪽.
 권정원, <李德懋의 公安派 批評理論의 受容樣相>, 《漢文教育研究》 제25집, 2005, 725~754쪽.
 _____. <李德懋 初期散文에서 公安派 受容의 實踐樣相 - 敘述技法의 特徵의 面貌를 中心으로>

- 로>, 《漢文學報》 제13집, 2005, 353~386쪽.
- ____, <원평도와 이덕무 문학이론의 同異點 고찰>, 《동양한문학연구》 제22집, 2006, 5~42쪽.
- ____, <이덕무 후기문학의 변모 양상과 正祖>, 《동양한문학연구》 제53집, 2019, 5~37쪽.
- 김근태,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소재 인물 일화(逸話)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2008, 389~420쪽.
- 이학당, <靑莊館 李德懋의 中國歷代作家批評樣相에 관한 考察>, 《漢文學報》 제20집, 2009, 455~486쪽.
- 김대중, <'작은 존재'에 대한 星湖 李瀼의 '감성적 인식'>, 《대동문화연구》 제65집, 2009, 233~274쪽.
- ____, <안정복의 朝鮮學人遺文수습 - 『잡동산이』 제22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35집, 2018, 79~120쪽.
- 최기숙, <惠奭·無名子·沆灑의 비평적 글쓰기를 통해 본 '人-文'의 경계와 글쓰기의 형이상학>, 《동방학지》 제155집, 2011, 177~219쪽.
- 이은봉, <조선후기 문풍의 변화와 이용휴의 글쓰기>, 《동양고전연구》 제48집, 2012, 91~116쪽.
- 추제협, <이익李瀼의 '감발설感發說'에 나타난 장현광張顯光의 사상적 영향>, 《한국학논집》 제54집, 2014, 265~284쪽.
- 이병주, <星湖 李瀼의 記文 研究>, 《동양문화연구》 제17집, 2014, 243~272쪽.
- 하지영, <이용휴 문학에 나타난 서학적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양고전연구》 제65집, 2016, 63~89쪽.
- 함영대, <조선후기 근기남인의 독서노트 - 순암 안정복의 초서롱>, 《한국문화》 제78집, 2017, 57~80쪽.
- 권운영, <朝鮮 初期 中國小說批評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73집, 2016.
- ____, <朝鮮時代(15-17세기) 文人 雜錄을 통해 본 中國小說批評>, 《中國學報》 제76집, 2017.
- ____, <朝鮮 中期 文人의 글에서 살펴본 中國古典小說에 대한 批評>, 《中國語文論叢》 제79집, 2017.
- ____, <俞晚桂 《欽英》에 나타난 중국소설 읽기>, 《中國語文論叢》 제91집, 2019.

< Abstract >

A Study on 18th Century Joseon Literati
Reading and Criticism of Chinese Ancient Novels

Kwon, Eunyoung

This paper is a study of various views of Chinese novel reading attitude, appreciation and criticism by writers of the 18th century Joseon Dynasty. The resulting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novel criticism of 18th century Joseon writers is mainly focused on the *Sidaqishu*(四大奇書), which seems to be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publishing and translation industries of the time, as well as a measure of which works were most popular at that time.

Second, it is also limited to the *Sidaqishu*(四大奇書) in terms of content criticism.

Third, if the novel's value was recognized as the positive value of utility until the 17th century, there were few criticisms of the positive value of utility in the 18th century. This is a result of reflecting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The problem of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how to expand the horizons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research and comparative literature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 truly dangerous idea to think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is outdated or unrelated to today's sense of real problems, given that it is a relic of the past. Studying the classics is an act of ceaselessly speaking to the wisdom of our ancient ancestors, which has been embedded in our bodies, and of casting a serious question about the fundamental value of human existence. In the face of the talk of the crisis of humanities today, one can expect that the Korean classics will enabl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substance of traditional society, as well as the

history of knowledg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at they will be a good research example in the comparative research of Korea and China, thus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academically. Moreover, at the end of this project, the individual and comprehensive study of Chinese novels in the 18th century's various literary writings will eventually be a step forward in the study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and the mixed study of Chinese classical novels, and the exchange of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with each other will further embody each other's research achievements. Furthermore, if the Chinese literature community is interested in the research, it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multi-disciplinary research tasks and boosting research exchanges through reading Chinese novels and enhancing the value of reviews outside of China.

China and Korea have a cultural character that has both congregations and combinations against the backdrop of East Asian cultures. In my view, the task of examining sentences that read the same book 200 years ago and commented frankly on its impressions will not be merel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but also to find the independent aspects and meaning of our culture and to present the humanities achievements that live up to the cultural realities of the current turbulent Korea-China relations. This will also increase academic efficiency through links between classical and contemporary, closed but open academic exchanges.

Key words: Literati, Joseon Dynasty, the Chinese Ancient Novels, 18th Century, Reading, Novel Criticis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 31.	2020. 2. 24.	2020. 2. 24.	2020. 3. 1.	2020. 3. 31.